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중등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 방안

김 향 정*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에서의 바람직한 다문화 음악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방법의 제시에 있다. 먼저, 한국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다문화 음악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교사의 인식문제, 구체적 지도법에 대한 내용을 살폈으며,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분석을 통하여 국가적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초로 중등 음악교육을 위한 '사회·문화적 맥락 접근', '공통 요소 접근', '통합 학습 접근'의 세 단계 학습 과정으로 구성된 모형을 제안하였다. 교사들이 교수-학습 과정의 구상단계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표와 함께,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한 지도 과정을 일본 민요 '코끼리코', 필리핀 민요 '바하이쿠보'에 적용하여 보았다. 다양한 자료와 실제적인 지도 방법의 제안은 교사들로 하여금 다문화 음악수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수업으로 이끄는 촉매역할을 한다. 성공적인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하여 교사 재교육,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도법 및 다양한 지도 자료 개발, 교육과정 보완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 주제어 : 다문화 음악교육, 사회·문화적 맥락 접근법, 공통 요소 접근법, 통합 학습 접근법

차 례

- I. 서론
- II. 다문화 음악교육의 이론적 고찰
- III. 다문화 교수법의 3단계 모형
- IV. 다문화 교수-학습 모형 적용
- V. 맺음말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강사

I. 서론

20세기 전후 다민족들의 이주가 많았던 나라들에서 국가 정체성 문제, 이민자들의 적응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교육적 책무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도 과거 여러 다민족 국가들이 가졌던 사회적 현상 및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다문화주의 교육은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 “다문화 강국 성패는 교육에 달렸다”(한겨레신문, 2008년, 11월 26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국가가 다문화, 다민족의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 개념 정립과 이에 따른 궁극적 지향점, 적절한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등 총체적인 설계는 미진한 실정이다. 장인실, 2006 ; 양영자, 2008)

교육은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이 다문화 사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함은 당위이다. 다문화 사회를 반영하는 다문화적 교육은 다양한 교과교육을 통하여 실현되며, 교과교육 중 하나인 음악과도 교과의 특성을 살려 이러한 교육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음악교과 또한 다문화와 관련하여 총체적인 설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구체적 지도 방안과 수업자료의 부족, 음악교사들의 다문화적 음악에 관한 이해 부족 등은 다문화 음악 지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행히 초등에서는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지만 이에 반해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 및 자료 등은 더욱 부족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다문화 음악수업에서 한국의 다문화적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목표 성취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 방법 제시에 목적을 두었다. 먼저, 현재 한국 다문화의 사회적 변화 및 그 양상을 고찰하고,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교사들의 인식

문제와 그들이 제시하는 지도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지침을 제공하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로부터 국가적 수준에서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며 연구자의 관점에서 몇 가지 논의를 거친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문화 음악 수업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교수-학습 과정 설계를 위한 예시안과 함께 일본 민요 ‘코키리코’와 필리핀 민요 ‘바하이쿠보’를 제시한 모형에 적용하고자 한다. 두 나라의 제재곡 선정 이유는 ‘초·중·고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 출신국별 현황’을 보았을 때, 퍼센트가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일본이 제일 높고, 주로 아시아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도 내용에서 많이 소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본과 필리핀의 제재를 선택하였으며, 그에 따른 적용방안은 교사중심의 지도 내용 및 자료 제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학습자의 구체적인 활동이나 과제 수행 등은 교사가 시기적절 하게 지시하고, 학습 순서 또한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는 전개가 필요하다.

다문화교육은 시대적 필연임과 동시에 역사적 소명이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교육 전반에 필요하며 음악교육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II. 다문화 음악교육의 이론적 고찰

다문화 음악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즈음, 먼저, 한국의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향, 다문화 음악 지도에 대한 음악교사들의 인식과 능력의 문제를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음악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법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국·내외의 연구를 살펴보고, 교사들에게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총체적인 지침이 되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지도과정 중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향

과거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서, 다문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다민족으로 구성된 독일이나 캐나다, 미국과는 다르게 출발하였다. 음악교육에서도 ‘다문화 음악교육’은 탕글우드 선언문이나 포괄적 음악교육 등에서 논의된 서구의 선진적 음악교육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여 ‘세계화(Globalize)’라는 교육적 이상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간 이해 교육 즉, 국제이해교육의 일환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정보화·세계화·개방화로 표현되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다문화 국가의 특성을 갖기에 이르렀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동력 감소, 기피업종의 인력 부족 및 국제결혼에 의한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하여 외국인 120만 시대를 넘어서고 있고, 이 때문에 이미 2007년 말 유엔인권위원회는 한국이 다민족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단일민족이나 순혈국가라는 주장을 지양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김향정, 2009, p. 373).

다문화 교육이란, 뱅크스(Banks, 2004, p. 2)나 메닝(Manning, 2008, p. 4)의 정의에 따르면 ‘일정한 지역 내의 다양한 집단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하며 이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그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마찬가지로 다문화적 음악교육에 관하여 캠벨(Campbell, 1993, p. 14)과 앤더슨(Anderson, 1996, p.1)의 정의를 요약하자면 ‘일정한 지역 내의 다양한 집단이 갖는 음악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음악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며 함께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 교육의 시작은 ‘일정한 지역 내의 다양한 집단’, ‘일정한 지역 내의 다양한 집단이 갖는 음악적 특성’이기 때문에 ‘세계화 교육’의 일환으로 방향이 맞춰졌던 다문화교육이 이제는 ‘한국 내’, ‘한국 내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물론, 세계화교육, 국제이해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한국 내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관심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한국 내의 다양한 집단이라 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을 들 수 있는데, 교육적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초·중·고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 출신국별 현황’(경상북도 교육청 정책연구, 2009)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퍼센트가 높은 국가 순으로 보면, 2009년 3월 현재, 일본(7,698명, 41%), 중국(조선족 포함 4,177명, 22%), 필리핀(2,678명, 14.3%), 베트남 (831명, 4.4%)으로 주로 아시아권임을 알 수 있다. 한국 내의 다양한 집단의 음악적 특성을 알고 그 음악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며 함께 지향하는 것이 다문화 음악교육의 목표라 하면,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아시아권 나라들의 음악이 먼저 선택되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다문화 음악교육의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집단의 음악적 특성과 함께 그 음악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함께 지향하는 것이 주요한 교육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즉, 음악적 개념과 함께 그 문화의 가치적 개념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과거 단순히 악보 보고 노래하는 지도 방법은 지양되는 것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적 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한국의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향은 ‘국가 내 이해교육’, ‘음악적 개념과 함께 가치적 개념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2.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

음악은 시대나 문화권에 관계없이 인간의 보편적 현상이지만 동시에 한 지역이나 공동체만의 특징적인 정신과 느낌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한 지역이나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 집단의 개별성, 특수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교사는 다문화 음악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역할과 책무를 지는데 이러한 특정 지역, 공동체의 개별성, 특수성을 이해하는 능력과 자질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들은 여러 나라의 음악적 개념 및 그 나라들

의 다양한 문화, 그리고 민족적 배경들을 지도하는데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다문화 음악수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티처(Teicher, 1997)는 설명한다. 또한, 무어(Moore, 1993)의 ‘음악교사들의 다문화 음악 지도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다문화 음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악교사와 실제로 다문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교사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낮다는 결과를 보여 티처의 연구와 일맥상통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캠벨의 연구가 답이 될 수 있는데 “비록 많은 음악교사들이 다문화 음악교육에 관심이 있고 이를 그들의 교수-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나 자료와 교사 훈련 부족, 다문화 음악 수업을 개발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가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 교육에서 어려움이 있다”(Campbell, 1992, p. 31)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김용기(1992)에 의하면, 다문화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의 대부분의 음악 교사들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문화 음악교육의 현실적 장애요인을 묻는 질문에 많은 교사들이 절대적 시간 수의 부족이나 중학교 음악교과과정에서의 일부 문화에 대한 편중, 효과적인 다문화 음악교육 모델의 부재 등을 꼽았다. 이는 캠벨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며 거의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측이 무리는 아니다. 이러한 이유가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출발점이며 연구의 당위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한다.

3. 다문화 음악 지도 관련 연구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구체적 지도 방법, 지도 자료들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스테프스(Stephens, 1984)는 ‘Afro-American 음악지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다문화 음악 지도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강의나 읽기 방법 보다는 민족문화와 그 민족 음악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

다. 이는 문화 맥락적 접근의 교육적 효과를 시사하며, 맥다니엘(McDaniel, 1988)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그들의 수행능력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악교육 과정 이수만으로 다문화 음악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다문화 음악지도 과정이 커리큘럼에 포함되고 교사교육이 재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 푸에르토리코 음악을 지도하는데 있어서의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퀘사다(Quesada, 1992)의 연구에서도 워크샵과 지도 자료가 함께 주어진 교사 그룹이 워크샵 없이 지도 자료만 주어진 그룹보다 교사능력점수가 매우 높았고 이 때, 지도 자료만 주어진 그룹도 두 가지가 다주어진 그룹에 만큼은 미치지 못하지만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는 지도 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하더라도 워크샵과 같은 교사 재교육 형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임을 증명한 것이며, 지도 자료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필수적임을 상기시킨다.

구체적인 지도법의 예로, 파르(Parr, 2006)는 다문화 음악수업에서 가창 활동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직접 연관이 있는 원주민과 대화하고 의논할 것, 한 번에 소수 혹은 한 개의 문화만 수업할 것, 여러 연주 형태나 비슷한 양식의 곡을 폭넓게 들음으로 수업 제재곡을 깊게 이해할 것, 그 문화에서 연주하는 음악가들의 언어방식, 교수방식으로 생각할 것 등과 같은 문화적 맥락을 강조한 여덟 가지 규칙을 제안하였다. 또한, 캐롤라인(Carolin, 2006)은 악기를 통하여 여러 문화권의 소리(musical sounds), 이야기, 그 문화의 역사를 도입하는 수업 방법을 구안하였다. 또한, 그 악기가 주변의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어떻게 유입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음악사적 사실까지 접근한 포괄적인 지도법을 소개하였다.

캠벨(1996)도 중국 기악음악 지도의 예를 보여주는데, 지도 순서를 보았을 때, 먼저 중국의 광활한 영토와 지리적 위치, 오랜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 음악에 있어서도 여러 장르의 민속 음악과 궁중음악, 고대 의식 음악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악기들-erhu, zheng, dixi, sheng, pipa 등으로 독주 혹은 작은 앙상블이나 대규모 오케스트라, 오페라나 춤의 반주에 쓰임-을 소개하고 주로 감상을 통하여 이들의 구체적인 음악적 특징을 체감하게 하였다. 사실 가창이나 기악 활동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양한 활동과 자료, 여러 종류의 악기들을 비교하고 문화, 역사와 함께 경험하게 하며 주된 활동 외에도 감상, 창작 활동 등이 함께 이루어짐으로 통합 활동이라는 관점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미국의 smithsonianglobalsound.org(또는 folkways.si.edu)는 이집트, 짐바브웨, 태국, 터키, 몽골리아, 캐리비언, 인도 등 세계의 여러 민족 음악에 대한 음악 자료와 정보, 그리고 구체적인 지도법을 제공하는 website로 다문화적 음악지도에 매우 유용함을 주고 있다. 이곳에서 일본음악 사쿠라의 지도과정 예시¹⁾를 보면, 가르치려고 하는 기술을 일반적 지식(일본인을 알고, hanami 축제와 봄과 관련한 풍습, 언어, 지역적 특징 및 가치)과 음악적 지식(서양음악과 일본 악기들의 감상, 부분적/전체 가락의 노래하기, 가락, 음계를 자일로폰이나 리코더로 연주하기, 자일로폰으로 즉흥연주하기)으로 나누고 음원, National Standards의 해당 목표, 지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블레어와 콘도(Blair & Kondo, 2008))가 제시한 일본 민요(Sakura)의 지도법에서도 감상, 노래 부르기, 문화적 맥락(축제)에서 접근, 음계구조 분석(감상, 가창, koto 연주), 창작으로 구성된다.

한국에서도 몇몇 연구에 의해 효과적인 다문화지도의 모델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다문화 대신 '상호 문화적'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한 민경훈(2004)은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상호 문화적 음악교육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한 질적인 지도 방법을 구상해야함을 강조하였고, 그 지도 방법으로 음악외적 접근, 음악활동, 음악의 구성요소 이해, 3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활동의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개선점을 지적하였다. 특

1) http://media.smithsonianglobalsound.org/docs/lesson_plans/SakuraJapan.pdf

히, 3단계 지도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예시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에 도움이 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한 연구로 김용희와 방금주의 ‘네 가지 학습 모형을 사용한 다문화 음악수업 지도 방안 개발’(2007a)과 ‘아프리카 음악 교수·학습 방안 개발’(2007b)이 있는데, 통합학습, 맥락학습, 조사학습, 정의적 학습이라는 네 모형에 기반을 둔 지도 방법이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역할극을 통하여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평등과 자유의 인권교육과 연결하는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준현(2006)은 그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4대륙에 관하여 12번의 수업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 3국의 실내음악 비교(6학년 대상), 극음악 비교(6학년 대상), 악기 비교(4학년 대상)를 하였고, 다른 지역의 수업안에서도 한국의 음악적 내용 및 특징을 수업하고자하는 지역의 음악적 내용과 비교·분석하는 수업 방식을 전체적으로 채용하였다. 이는 공통요소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의 지도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국의 음악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문화의 음악과 비교하여 비슷한 점/차이점 찾기, 느끼기, 설명하기, 둘째, 음악외적인 것으로 사회, 문화, 역사, 종족, 가치적 개념 등 문화 맥락적 지도하기, 셋째, 실제적 지도 방법은 신체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과 수준 높고 신뢰도 있는 자료들을 사용한 통합학습으로 설명되고 있다.

4.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무엇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교육과정이며, 이의 실행을 돕는 가장 보편적인 매체는 교과서이다. 다문화 음악교육과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7학년 음악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 음악 수업>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2007년 교육과정 내 다문화관련 지도 내용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활동	가창	· 다른나라 노래 (아시아)부르기	· 다른 나라 노래 (유럽)부르기	· 다른 나라 노래 (아메리카)부르기	· 다른 나라 노래 (아프리카)부르기
	감상	*	*	· (여러 지역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 악곡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며 감상하기 · 여러 문화권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이해		*	*	*	*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다른 나라(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노래 부르기’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해설서(pp. 146-147)에 의하면, 지리적 근접성이나, 문화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노래의 지역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7학년에서는 아시아, 8학년에서는 유럽, 9학년에서는 아메리카의 노래들을 학습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시아권 음악을 7학년에서 먼저 다루도록 되어있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나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국가 간 이해교육)에 의한 이유에서 보다는 한국의 다문화적 변화의 양상과 추이라는 시대적 변화(국가 내 이해교육)를 반영한다는 설명이 추가되어야 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상, 다문화 지도와 관련하여 가창과 감상, 두 가지 활동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7, 8학년에서는 ‘노래 부르기’만을 활동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도법은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음악적 특징과 개념, 사회·문화 맥락적 측면, 그리고 그 음악의 가치적 개념까지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구조는 자칫 교사들에게 노래 부르기과 감상하기만의 단순하고 분절적 활동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교

사가 알아서 통합적으로 잘 지도 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다문화 음악의 이해가 부족한 교사들에게는 어려운 과정으로, 적어도 해설서에서 만큼은 ‘아시아 문화권 음악 경험하기’, 아시아권 나라 중 어떤 나라, 그 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음악적 내용(이해영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7학년 음악 교과서 16종의 다문화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은 교과서 별로 장점과 단점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다문화 음악교육이라는 큰 패러다임에서 교과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따라서 교과서별 출판사는 무작위 A, B, C... 로 명명하였고, 교과서 내에서 다문화 관련(아시아권) 내용이 차지하는 쪽수, 가창활동에서 선정된 나라와 곡명, 감상과 기악은 별도의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하였다.

<표 2>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7학년 교과서 <다문화 관련> 내용 분석

출판사	페이지	가창	감상	기악
A	2	아시아의 노래듣고 부르기(몽골-밤의 노래, 베트남-가을 축제, 일본-코키리코절, 중국-물에 비친 하늘)	한국, 중국, 일본의 극음악 (창극, 경극, 가부키)	나라별 대표악기 소개 그림
B	6	일본-벚꽃, 중국-초원의 노래, 몽골-경마대회, 터키-위스크 다라)	*	아시아의 전통악기
C	4	다른 나라의 음악(중국-모리화, 인도네시아-봉아완 솔로, 터키-우스쿠다라, 필리핀-꽃은 지고, 태국-보름달, 일본-벚꽃)	더 나아가기 - 한국의 창극, 경극, 가부키 비교	다른 나라의 전통 악기 (세계)
D	3	아시아의 민요(중국- 물에비친 하늘, 이스라엘-돌아가리, 인도-달아 달아, 필리핀-꽃은 지고, 일본-벚꽃)	한국, 중국, 일본의 극음악 (판소리, 창극, 경극, 가부키)	*
E	8	중국-만리장성, 초원정가, 인도네시아-봉가완솔로, 베트남-리 디아 땀 보, 필리핀-바하 이쿠보, 스리랑카-코끼리 바나마)	*	아시아의 민속악기

출판사	페이지	가창	감상	기악
F	13	아시아의 민요(중국-모리화, 몽고-밤의 노래, 대만-알리산, 일본-벚꽃, 인도네시아-라사 사양게, 찰밀밀, 베트남-어린이들의 축제, 필리핀-꽃은 지고, 말레이시아-람베람베, 싱가포르-찬 말리 찬, 이스라엘-하바 나길나, 안녕, 이란-소맥꽃, 터키-우스쿠다라, 인도-인도의 노래)	페르시아 시장에서, 교향시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가물란 합주 찰밀밀과 모리화 리코더 합주
G	10	아시아노래(중국-모리화, 일본-사쿠라, 인도네시아-봉가완솔로, 남인도-비그네슈와라기타, 이스라엘-하바 나길라)	*	아시아의 민속악기
H	6	아시아음악(중국-모리화, 필리핀-꽃은 지고, 베트남-축제의 북, 인도네시아-찰밀밀)	들어보기 (일본-밀빠진 냄비, 터키-우스쿠다라)	아시아지역 악기 조사
I	6	중국-모리화, 일본-벚꽃	이웃나라의 음악극(경극, 가부키)	중국, 일본 악기
J	2	생활속의 음악(아시아 민요, 중국-무지개자매, 키르기스스탄-축복 말씀을 나누세, 이스라엘-휴식, 일본-반딧불아 오너라)	*	*
K	6	아시아노래(중국-모리화, 타이-풍년의 노래, 일본-사쿠라, 몽골-몽골의 밤의 노래, 인도-다왈리 노래)	아시아 전통 축제	아시아 전통 악기를 찾아서
L	5	일본-새장의 작은새, 터키-우스쿠다라, 중국-모리화, 몽골-몽고의 밤 노래, 필리핀-꽃은 지고, 베트남-어린이들의 축제)	여러나라의 극음악(창극, 가부키, 경극)	나아가기(일본악기 고토, 샤미센)
M	8	이웃나라의 민요(중국-모리화, 일본-벚꽃)	이웃나라의 음악극(경극, 가부키)	*
N	8	음악으로 아시아를 여행해요(중국-모리화, 일본-벚꽃, 터키-우스쿠다라, 베트남-리 디아 빠임 보, 이스라엘-하바 나길라)	중국의 일본의 극음악(경극, 가부키)	*
O	3	아시아 민요(이스라엘-안녕, 터키-여름날, 이란-소맥꽃, 스리랑카-코끼리 바나나, 일본-달아달아, 중국-모리화, 필리핀-아들아)	*	*

<표 2>에 따르면, 연구자가 주장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국가 즉,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을 모두 제시한 교과서는 F와 H, L이다. F

교과서의 경우, 다른 교과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13쪽의 지면을 ‘아시아권의 음악’에 배정하면서 아시아 전체를 광범위하게 다루었고 다양한 감상활동, 기악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단위시간의 부족으로 한 문화권의 음악 경험을 여러 번 하기는 어려우며, 저자나 교사의 욕심만큼 여러 문화권의 음악을 모두 경험해 본다는 것 또한 어렵다. 따라서 꼭 학습해야 하는 문화권을 결정하고, 그 문화권의 음악적 특징은 물론, 그 문화와 관련하여 많은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활동까지 적용 가능한 제재곡의 선정이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배정한 쪽수에 비해 여러 악곡을 제시한 경우는 대개 악보만 소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사들의 적극적인 다문화 음악수업의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도방법 및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 제시된 교과서, 또는 교사용 지도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Ⅲ. 다문화 음악교수법 3단계 모형

중등학교 다문화 음악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위에서 살펴본 결과, 첫째, 사회, 문화, 역사, 종족, 가치적 개념 등 사회·문화 맥락적 지도하기, 둘째, 자국의 음악적 지식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문화의 것들과 비교하여 비슷한 점/차이점 찾기, 느끼기, 설명하기, 셋째, 신체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과 수준 높고 신뢰도 있는 자료들을 사용한 통합 학습으로 요약한 바 있다. 즉, 지도 내용은 ‘음악적/음악외적 구성요소’, 그리고 이를 위한 지도 방법은 ‘통합적’이라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등학교 다문화 음악수업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 음악외적 구성요소는 사회·문화 맥락적 접근에서, 음악적 구성요소는 공통요소 접근으로, 통합적 지도 방법은 통합 학습 접근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문화적 맥락 접근법

다문화 음악지도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서로 상이한 지리적 위치, 문화 및 사회적 환경에 기초한 음악들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그 음악의 사회·문화 맥락적 경험과 이해를 전제한다. 조든(Jordan, 1992, p. 736)은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하여 다문화적 음악 학습과 함께 문화적 맥락에 대한 학습 둘 다 필요하다. 즉, 다문화 음악을 아는 것과 함께 그 음악이 춤, 드라마, 의식, 시각적 요소들과 어떻게 연관되어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또한 리건(Reagan, 1991)도 다문화 음악교육은 음악적 개념뿐 아니라 그 음악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관한 학습이 음악 못지않게 중요하다 주장하였으며, 놀테(Nolte, 2004) 역시 다문화 음악교육은 음 체계, 민족 고유 악기, 음악표현 수단이나 방법 등 종족 음악적 지식의 습득과 함께 다문화 음악이 일상생활과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체감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학습대상이 되는 문화에 젖어들어 그 음악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파악, 즉 ‘잠그기(immersing)’가 적절한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같은 의미에서 앞에서 살펴본 파르(Parr, 2006)도 다문화적 가창 수업시 문화적 맥락을 강조한 여덟 가지 규칙을 제시하였으며, 김용희와 방금주(2007)도 다문화 음악 수업 지도 방안의 네 가지 학습 모형에 실제 상황 혹은 실제와 유사한 상황 안에서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맥락학습’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사회·문화 맥락적 접근법에 의한 다문화 음악교육은 자연스럽게 다문화 음악과 연관된 관습, 역사, 지리, 그리고 신념 등과 관련된 여러 교과와 성취를 도우며 이러한 경험은 학교 안에서 총체적인 교육목표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Fung, 1995) 와 “다문화적 음악교육은 음악적/비음악적 목표를 갖는데, 비음악적 목표는 자아인지, 자존감, 타인과의 감정교류, 인간 존엄성과 같은 목표를 공유함으로 정의적 측면의 목표를 포함한다”(Hackett & Lindeman, 1997)는 주장이 다문화 음악교육의 지도

에 설득력을 더한다.

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음악교과와 타 교과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이를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교과 통합에서 나타난다. 즉 ‘음악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중심에 두면서, 관련되는 타 분야의 내용을 통합시키는 교육’으로 다른 교과 내용의 분석을 통해 음악 단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통합적인 수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p. 163). 우선, 지도하고자 하는 나라의 지리적 위치, 사회·문화적 특징 등은 지리나 사회과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서 평등함,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가치를 지향하는 삶 등의 ‘가치적 개념’은 도덕교과로, 더 나아가 교수-학습 과정까지 확장시키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의 수집 및 제작은 컴퓨터 운용 능력으로, 춤을 추거나 의식 또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등은 체육이나 미술 등의 학습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외의 여러 연구들은 다문화적 측면에서 제작된 영화를 문화 맥락적 접근법에 의한 교수-학습의 유용한 자료로 제시(Sarrasin, 2006; Bowman, 2008; Chee-Hoo Lum, 2009)하고 있다. 다문화적 맥락 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직접적인 문화체험, 현장 학습이 되겠지만 교육현장의 제약 때문에 역할놀이나 역할극 등의 방법과 함께 영화(한국의 ‘서편제:1993’, 인도의 ‘The Last Dance:1999’, 태국의 ‘The Overture:2004’ 등)나 DVD, 동영상과 같은 영상물도 다양한 문화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 된다. 이와 함께 악기를 제작하거나 영상물을 통하여 음악과 함께 춤을 추고, 의식이나 축제를 재현해보는 방법 등도 학습 경험의 질과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특히 중등학교 학생들은 영화나 영상물을 이해하는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시각적 자료에 보다 익숙함으로 유용한 매체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맥락 접근은 학습 동기 유발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실제 음악적 관심이 부족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리적, 또는 문화적 관심으로부터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음악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시작 단계에서 보다 유용하며 지도 자료와 함께 많은 준비

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사회·문화적 맥락 접근법은 지도하고자 하는 다문화사회의 ‘가치적 개념’을 전제한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선별하여 제시하고, 주어진 교육여건에서 맥락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 자료의 수집 및 제작,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

2. 공통 요소 접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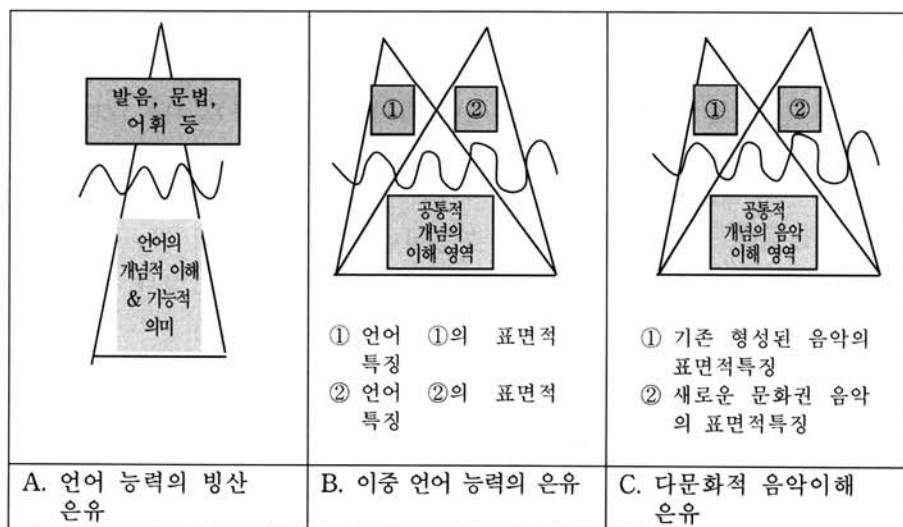
공통 요소 접근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문화, 모든 양식의 음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 요소들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종합적인 음악학습 방법이다. 이는 다문화 음악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연 CMP(Contemporary Music Project)의 ‘종합적인 음악성 함양’을 위한 세 가지 원리 중 하나로, 공통 요소적 관점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음악들은 그 구조상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은 소리로 부터’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된다(이홍수, 1990, p. 379).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경우, 학습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음악의 프레이징, 조성 혹은 분위기에 대한 직관적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기존의 학습된 음악 요소적 특징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적인 음악적 이해력은 다른 문화권 음악의 표현적 속성을 이해하고 발견하는데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Blair & Kondo, 2008, p. 52). 블레이어와 콘도(2008)는 이중 언어 능력을 예로 들어 다문화 음악교육의 가능성을 [그림 1]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 1]에서 A는 인간의 언어적 능력을 빙산에 비유한 것으로, 인간의 공통적 기본 능력(언어의 개념 및 기능적 의미의 이해)을 빙산의 수면 밑 부분에 비유했으며, 각각 다른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발음이나 문법, 어휘 등을 수면 위로 솟아있는 빙산의 윗부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B는 A의 도식을 바탕으로 한 이중 언어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국 언어①은 수면아래와 위의 능력을 갖춘 A와 다름 아니다. 언어②는 수면아래의 공통적인 개념(언어①)을 기반으로 수면위에 나타나는 언어의 표면적 특징만을 습득함으로써 가능하

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림 C는 다문화적 음악의 이해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새로운 문화권의 음악습득은 기존의 공통 요소적 음악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의 표면적 특징만을 학습하면 되는 것으로, 결국 기존의 습득된 언어나 음악은 새로운 언어, 음악을 습득하는 데 별개가 아니라 매개 역할을 하며, 나아가 기존의 언어적, 음악적 이해를 보다 분명하게 개념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음악들의 공통된 구성 요소, 그 요소들의 유이점과 상이점, 음악 행위의 원리 및 음악적 의미에 대한 이해는 음악활동의 질을 높이고 폭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문화 지도과정에서 어떤 문화권의 어떤 음악적, 문화적 개념을 지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 즉, 분명한 목표의 제시가 이 공통요소 접근법에서는 중요하며, 이의 순서는 다문화 제재곡 선정 → 지도 개념 선정 → 공통요소 접근법에 의한 개념(한국음악, 서양음악을 포함한 문화적 역사적 개념 포함) 비교(유사/상이) → 개념적 목표 진술 이다.



<그림 1> Blair & Kondo, 2009, pp. 52-53

3. 통합 활동 접근법

사회·문화 맥락적 접근이 음악외적 목표에 해당하고, 공통요소 접근은 음악적 목표에 해당한다면, 통합 활동 접근은 이를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음악교과 지도 방법에 있어서 ‘통합’이라는 표현은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쓰이지만, 본 연구에서의 통합 활동 이라함은 학습 활동 간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표현, 독보, 가창, 기악, 창작 및 이해영역을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일련의 단계를 의미한다.(권덕원 외, 2008. p. 260).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등의 교수법은 물론 CMLS (Comprehensive Music Learning Sequence)같은 지도법 등이 통합 활동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으며, 가창, 감상, 기악 및 창작 활동 간의 통합 뿐만 아니라 이해와 활동의 통합은 현대 음악교육의 수업에서 중핵이 되는 부분이다.

음악교육에 있어 통합 활동이라 함은 다문화 음악교육이라는 특정의 주제를 벗어나 음악과 교수-학습 과정의 바람직한 지도법 중의 하나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통합 활동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수업과 관련하여 민경훈은(2004, p.444) “가창·기악·창작·감상 활동을 중심으로 전이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부르거나 듣는 정도의 감상활동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자도 과거 단순히 악보 보고 노래하는 지도 방법은 지양하는 것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적 태도라 강조하였으며 통합 활동이라는 지도 방법이 적용될 때 ‘사회·문화 맥락적 접근’, ‘공통요소 접근’의 교육적 내용이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

다음은 벨츠(Belz, 2006, p. 45)의 ‘다문화적 음악 경험을 위한 지침’은 교수-학습 과정 및 지도 방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문화내부자(cultural insider)는 신뢰도 높은 자료제시와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 종교적 혹은 세속적 자료들은 적절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음악은 문화적 맥락과 그것의 지리적 기원의 측면에서 경험되어야 한다.
- 노래들은 그들의 언어, 발음 지도, 번역, 발성법의 독특한 측면의 설명, 악보 필사본 등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게임과 춤은 명확한 설명과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 수준 높은 시각 자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 지도 전략들은 음악과 함께 다양한 활동 경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통한 제시되는 다문화적 음악은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이끌 수 있다.
- 문화는 동적이며 변화한다. 그러므로 그 문화의 전통적인 음악뿐 만 아니라 현대적인 것도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음악적/음악외적 지도개념 선정에 따른 활동 구성은 감상 - 가창 - 신체표현(춤) - 기악 - 창작 (즉흥연주)의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은 교사의 지도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가감 또는 순서를 바꿈으로서 모듈화 할 수 있다.

<표 3>은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모형을 교수-학습 과정 설계를 위한 예시안으로, 일본 'Kokiriko'를 제재곡으로 하여 그 예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도안의 개념과 달리 지도하는 순서를 제시하기보다 지도해야 할 내용과 필요한 자료, 그 자료를 얻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통요소 접근의 음악적 개념은 지도해야 할 목표 중 하나로 특히, 감상과 가창 활동을 통해서 통합적 경험(이해와 활동통합)으로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자료 중 많은 부분을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데, 특히, 백과사전인 '위키피아'나 'youtube', '개인블로그'는 교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매체이기도 하다.

4. 세 모형에 의한 교수-학습 과정 설계 예시안

앞에서 살펴본 세 모형에 의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일본 민요 ‘코키리코’를 예로 들어 제시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자료를 통하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 역할을 한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위하여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교수-학습 과정 설계 예시안

국가	일본			
제재곡	'코키리코(Kokiriko)'			
수업목표	· 일본민요 'Kokiriko'의 음계구성을 한국음악, 서양음악의 음계와 비교 설명할 수 있다. · 일본 'Kokiriko'를 춤과 함께 노래할 수 있다. · 일본 토야마현의 문화유산과 코키리코 마츠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모형	지도 개념	지도 내용	교수-학습 과정 및 자료	
			자료	출처
문화맥락적 접근	가치적 개념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관련서적	위키백과,
	지리	일본, 토야마현(지리적특징),	일본/토야마현지도	
	사회	입헌군주, 3위경제대국, 자위대		
	문화	코키리코 마츠리(축제)	동영상, 화보	http://www.youtube.com/watch?v=s4u6jIt9uyc&feature=related
공통요소 접근	음악적 개념	일본 음계	음계구성악보	교과서/교사용지도서 일본음악 관계서적
	공통 요소	음계 (일본음계와 한국음악, 서양음악 음계의 비교)	"	"
	개념 지도 목표	일본 민요 'Kokiriko'의 음계구성이 특징을 한국음악, 서양음악의 음계와 비교 설명할 수 있다.	"	"

모형	지도 개념	지도 내용	교수-학습 과정 및 자료	
			자료	출처
통합활동접근	감상	제재곡 'Kokiriko'의 발음과 발성에 유의하면서 듣기	'Kokiriko', CD	웹사이트 사운드 음원
	가창	· 일본어 발음으로 노래하기 · '일본음계'의 분위기를 느끼기 · 가사내용 확인	- 악보, 일어 발음 및 가사내용 확인 - 대나무 막대 2개(클레이브스)	교과서/교사용지도서
	기악	· 'Kokiriko'악기의 유래, 구조 및 특성, 쓰임새 알기 · 기악 합주하기	제재곡 악보 기악합주 악보	http://www.youtube.com/watch?v=CtsngVCSp00&feature=related (일본교과서악보)
	신체활동	동영상 보면서 'Kokiriko' 함께 춤추기	- 동영상, 대나무 막대 2개, 부채(사사라 악기대용)	http://www.youtube.com/watch?v=CtsngVCSp00&feature=related
	창작 (즉흥연주)	일본음계에 의한 2마디 적고 '테데레코멧'붙이기	오선악보	교사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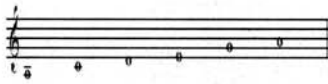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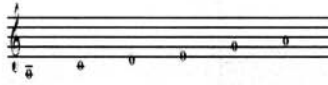
IV. 다문화 음악교수법 모형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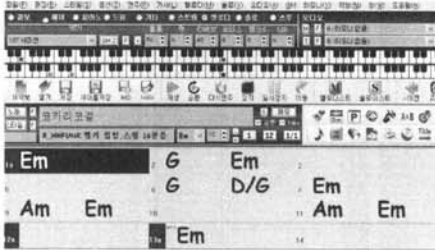
다문화 음악수업을 구상 하는 데에 있어, 먼저 학습할 문화권을 결정하고, 그 문화권의 음악적 특징, 문화와 관련한 교육적 내용, 나아가 다양한 활동까지 적용 가능한 제재곡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지도모형의 적용을 위하여 가능한 한 이러한 특징을 충실히 담는 제재곡으로서, 일본음악은 A교과서의 '코키리절'을, 필리핀음악은 E교과서의 '바하이쿠보'를 선정하였다. 이때, 일본과 필리핀은 아시아 문화권 중에서도 수업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1. 일본

국가	일본		
학습제재	가창 'Kokiriko' : 옛 모습 그대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민요		
학습목표	· 일본민요 'Kokiriko'의 음계구성과 특징을 한국음악, 서양음악의 음계와 비교 설명할 수 있다. · 일본 'Kokiriko'를 율동과 함께 노래할 수 있다. · 일본 토야마현의 문화유산과 코키리코 마츠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모형	지도 개념	지도 내용	교수-학습 과정 및 자료
사회·문화맥락적접근	가치적개념	'멀고도 가까운 나라'	올바른 역사적 인식, 현대사회의 동반자적 역할, 일본과의 긍정적 감성교류
	지리	- 동아시아 - 지리적 여건속에 나타나는 한국과의 관계 - 토야마현의 지리적 특징	
	사회	- 천황과 헌법이 양립하는 입헌군주제 - 국내총생산의 규모비로는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 - 자위대	- 천황은 외교의례 상에서 일본의 국가원수, 현재 일본의 천황은 아키히토, 현 총리는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 단위는 엔(円, ¥),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필요한 대부분의 산업용, 소비용 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전자산업, 물질산업, 에너지산업. -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당시 항복의 조건으로 정식 군대를 해체,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가지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나 일본의 기초적인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경찰예비대를 설치, 자위대로 승격함으로 사실상 군대로 변모

모형	지도 개념	지도 내용	교수-학습 과정 및 자료
문화		- 갓쇼즈쿠리 가옥 양식: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 지붕위에 쌓인 눈을 내리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급경사 지붕을 축조함-일본 중요문화재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 코끼리코 마츠리:	 www.kokiriko.com/top.html - 원래 풍요와 풍작을 기원하는 노동요에서 파생. 이후 모내기나 추수때 흥을 돋구어 작업능률을 높이기위해 전문 예능인들이 중간중간 춤을 추며 노래하였던 풍습으로 발전 - 白山宮(하쿠산구)에서는 後醍醐天皇(고스 이고덴노)을 위로하는 제사로서 こきりこ踊り(코키리코 토오리-춤)가 봉납됨. - 일본음악은 일반적으로 연극이나 무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런 예술과 강하게 결합되어 발달. 따라서 일본의 전통음악은 종합예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모형	지도 개념	지도 내용	교수-학습 과정 및 자료
공통요소접근	지도 개념	- 일본 음계	 - 5음구성 (陽)  - 5음구성 (陰) - 5음구성 외에 도, (레), 마, 파, 솔, 시, 도의 라가 빠진 7음 구성으로 이루어진 민요도 있음
	공통요소	- 음계 (일본음계와 한국음악, 서양음악 음계의 비교)	  
	개념적 목표 진술	- 일본민요 'Kokiriko'의 음계구성을 한국음악, 서양음악의 음계와 비교 설명할 수 있다.	- 'Kokiriko'는 라, 도, 레, 미, 솔 5음 양(陽)의 구성으로 아시아권의 5음음계, 한국의 음계구성과 같음. 음악의 구조의 전체적 구조는 비슷하나 라에서 레의 상행 진행이 많아 한국과는 느낌의 차이를 나타냄
통합활동접근	감상	- 제재곡 'Kokiriko'의 일본어발음과 발성에 유의하면서 듣기	일본어 발음: 코키리 코노- 오타 케와-시치-스은-고부-자 나가-이와-아소 데노-카나 카이-자 마도노 산사모 데테레코 땡 하레노 산사모 데테레코 땡 - 데테레코 땡은 의성어로 땡은 북소리를 묘사함

모형	지도 개념	지도 내용	교수-학습 과정 및 자료
	가창	- 리듬막대를 두드리며 일본어 가사로 리듬읽기 - 일본어 발음으로 노래하기 - 악보에서 일본음계 확인하고 분위기 느끼기 - 한국의 오음음계와 차이점 말하기 - 가사내용 알기 - Band-in-A-Box의 사미센, 코토 악기 반주에 맞춰 노래하기	http://www.youtube.com/watch?v=CtsngVCSp00&feature=related(일본교과서악보)  가사내용: 코키리코에 쓰이는 대나무는 7촌5부라네. 너무 길면 소매에 걸린다네. 마도모 산사모 데데레코댕 하레노 산사모 데데레코댕 
	기악	- 'Kokoriko' 악기와 사사라의 구조 및 특성, 쓰임새 알아보기	 - 코키리코는 7촌5부(약23cm) 길이의 대나무로 만든 도구로 이를 양손에 쥐고 손목을 돌리면 춤을 추는데 이때, 속이 빈 대나무에서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며 원시적인 형태이지만 일종의 악기인 셈.

모형	지도 개념	지도 내용	교수-학습 과정 및 자료
		- 리듬막대로 리듬 풀 연습하기 - 악보 보고 피리, 소고, 북, 캐스터네츠, 리듬막대를 사용하여 기악합주	- 사사라(사사라): 사사라는 코키리코의 일종으로 대나무, 노송나무로 만들어진 악기, 108개의 나무토막과 양쪽의 손잡이를 끈으로 결합한 형태, 나무토막이 옆에 있는 나무를 차례로 충격을 전달, 코키리코 축제 때 민요를 부르고 춤을 추며 악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어 모두가 참여하게 함. 108장의 나무조각은 108번뇌를 구제하는 신앙과 관련있음. http://blog.naver.com/obseenko/80052489635 http://www.youtube.com/watch?v=s4u6jIt9uyc&feature=related
	신체활동	- 동영상을 보면서 'Kokiriko' 춤 따라하기 - 리듬막대 2개, 부채(사사라대용)를 사용하여 춤 익히기	http://www.youtube.com/watch?v=CtsngVCSp00&feature=related
	창작 (즉흥연주)	'라도레미솔' 일본 5음음계에 의한 가락 2마디 적고 '데데레코댕' 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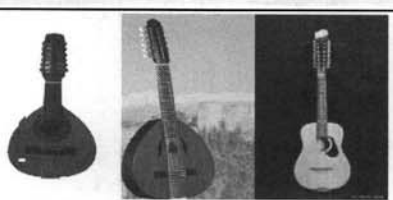
공통요소 접근법에서 보았을 때, 음계는 한국음악, 서양음악 뿐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음악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음악적 요소이자 개념이다. 한국의 중·고등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음계라는 음악적 개념은 한국음악, 서양음악의 학습을 통하여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매개로 하여 새로이 학습하고자 하는 문화권의 음계를 익히는 과정인 것이다. 이 때, 일본의 음계가 'Kokiriko'에서 사용된 하나의 음계로 설명될 수 없는 바, 특히 음악적 분위기, 직관적 감각의 차이점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2. 필리핀

국가	필리핀		
학습제재	제재곡 '바하이쿠보(BahayKubo)'와 '티니클링(Tinikling)'(대나무춤)		
수업목표	· 국가적 시련과 함께하는 음악의 역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티니클링'을 춤추면서 '바하이쿠보'를 노래 할 수 있다.		
모형	지도 개념	지도 내용	교수-학습 과정 및 자료
문화·맥락적 접근	가치적 개념	'국경 없지만 마음의 거리는 아직 멀다'	혜화동 필리핀 마을 http://www.edunet4u.net
	지리	-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사이에 자리 잡은 7,107 개의 크고 작은 섬, 보라카이, 세부 등 이름난 여행지 많음.	

모형	지도 개념	지도 내용	교수-학습 과정 및 자료
	사회	- 필리핀은 과거 스페인, 미국의 식민지: 민속춤 Tinikling의 기원 - 로마 가톨릭 전통 (스페인의 영향, 수도사들의 천국이라 불림) - 총기소지 자유로움 (여행시 유의) - 언어는 필리핀어와 영어 - 모병제	필리핀의 민속춤 - Tinikling  - Tinikling은 스페인의 통치시절 노동착취 수단으로 노동자들이 게으름을 피우며 빨리 일하지 않으면 발목을 다치게 하는 장치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이후 놀이로 발전하여 장대를 잡은 2명은 대나무 장대를 떼어 바닥에 2번, 대나무끼리 마주치면서 1번, 3박으로 진행되며 무용수를 그 주위를 돌아 춤을 추거나 대나무 사이를 닿지 않게 걸어가며 율동을 계속함.
	문화	-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혼재되어 나타남. - 토속적 주거: - 현대 주거:	주거문화: - 토속적 주거 · BahayKubo(=nipa hut): 매우 대표적 주거형태로, nipa 잎으로 지붕을 인 작은 오두막. 반으로 나눈 대나무를 밀착시켜 바닥을 만들고, 방이 따로 없이 하나의 넓은 공간에 침실과 식당이 같이 있음. - 현대는 매우 서구화된 서양식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가 대부분임. 

모형	지도 개념	지도 내용	교수-학습 과정 및 자료
		-민속의복:	- 의복문화: 축제나 기념일에 바롱, 바롯 사야를 즐겨입고 한국의 삼베옷과 비슷하며 주로 파인애플과 바나나 잎사귀의 실을 뽑아 짠 것으로 매우 정교함. 남성: 바롱(Batong Tagalog), 여성: 바롯사야(Baro't Saya) 
공통요소접근	지도 개념	음악과 주권	*
	공통요소	- 식민지 국가의 애환 - 필리핀은 스페인, 미국의 식민지 -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 '제재곡' 봉숭아와 비교	- 포르투갈의 마젤란이 세부섬에 상륙하면서 유럽세계에 알려지고 에스파냐의 식민통치가 200 여년간 지속됨. 파리강화조약에 따라 2000만 달러에 미국에 양도. 이후 미국 식민지에서 10년후 독립 승인.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점령하에 있었던 매우 불운한 역사를 가진 나라. - 일본의 침략을 음악 문화적 찬탈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함.
	개념적 목표 진술	국가적 시련과 함께 하는 음악의 역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통합활동접근	감상	- '바하이쿠보' 노래에 맞추어 추는 'Tinikling' 동영상 감상.	http://uccmate.tistory.com/126?srchid=BR1http%3A%2F%2Fuccmate.tistory.com%2F126
	가창	- 필리핀어로 가사 읽기 - 가사 내용	- 바 하이 쿠 보 쿠 헛 문 티 앙 하 라 맨 도 언 아이 사 리 사 리 싱 카 마 스 아 타 롱 시 가 릴 야 스 앙 마 니 - 시 타 오 바 타 오 파 타 니

모형	지도 개념	지도 내용	교수-학습 과정 및 자료
		- '바하이 쿠보'와 흥난과 작곡 '봉숭아'의 가사내용과 비교	- 내 집은 비록 작을지 몰라도 내정원에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키도 커요. 무, 땅콩, 콩이 줄맞춰 서있고 내가 키우는 많은 식물이 있어요.(작은 집-어려운 국가적 상황, 내정원, 식물-독립을 향한 미래적 희망) 
	기악	- 전통악기 종류 · 반두리아 · 라우드 · 옥타비나 - GM에서 악기의 음색탐색하기	 - 반두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만도린과 비슷한 소형악기, 스페인의 오랜 기간 지배로 생겨난 악기 4도 조현악기, 각종악기의 협주로 이루어지는 론달라에서 주로 사용 - 라우드, 옥타비나: 반두리아와 비슷하지만 음색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GM에서 악기의 음색 듣기.
	신체활동 (즉흥연주)	- '바하이 쿠보'에 맞추어 티니클링 춤추기	- 대나무 장대를 바닥 2번, 마주보고 1번, 3박으로 리듬감을 살려 춤. - 춤추는 사람은 동영상의 동작을 보면서 연습.
	창작	- '꽃은 지고'(4/4) 노래에 맞춰 티니클링 신체동작 창작하기	- 대나무 장대를 바닥 2번, 마주보고 2번, 4박으로 리듬감을 살려 춤. - 춤추는 사람은 4박에 맞추어 신체동작하기

공통요소 접근법이란 한국음악, 서양음악 뿐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음악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음악적 요소이자 개념을 익히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필리핀 민요는 아시아권의 민요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유럽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관계로 아시아권역의 음악적 특징인 5음 음계가 많이 사용되지 않으며, 장음계, 단음계, 리듬과 가락 등이 서양음악과 유사하다. 특히 ‘바하이쿠보’는 음악적 특징 보다는 음악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함으로 ‘음악과 주권’이라는 가치적 개념의 측면에서 공통요소로 접근하였다.

V. 맺음말

교육은 국가가 요구하는 인간상 육성에 그 책임이 있다. 현재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국가로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시대적 당위이며 음악교육의 역할 또한 이에 부응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등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의 모형을 제안하고 그 모형을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한국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 국내·외 다문화 음악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교사의 인식문제, 구체적 지도법에 대한 내용을 살폈으며,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분석을 통하여 국가적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였다. 과거 단일민족이라 일컬었던 한국은 미국, 캐나다 독일과 같은 다문화국가로 변모하였으므로 ‘국가 간 이해 교육’과 함께 ‘국가 내 이해교육’의 측면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교사의 인식문제에 있어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절감하나 교사들의 이해부족, 다양한 자료와 방법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수업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다문화 음악교육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음악적 특징과 개념, 사회·문화 맥락적 측면, 그리고 그 음악의 가치적 개념까지 다루는 것을 지향하

는 것을 볼 때,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형태는 자칫 교사들에게 노래 부르기과 감상하기만의 분절적 활동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교육과정과 해설서에는 ‘아시아 문화권 음악 경험하기’, 아시아권 나라 중 어떤 나라, 그 나라의 특징적인 음악적 내용(이해영역)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론적 바탕으로 중등 음악교육을 위한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사회·문화적 맥락 접근법’, ‘공통 요소 접근법’, ‘통합 학습 접근법’으로 먼저 교사들이 교수-학습 과정의 구상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시표를 제시하였고, 일본 민요 ‘Kokriko’와 필리핀 민요 ‘BahayKubo’의 지도과정을 적용하였다. 이는 교사들에게 다문화 지도 과정에서 어떤 지도 내용을, 어떤 지도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다문화 수업에로의 적용에 유용하리라 기대한다.

미국이 2020년경이면, 미국 전체 인구중 46.7%가 이민자로 채워질 것이라 전망하며(Banks, 2004), 한국이 2020년이면 7가족 중 1가족이 다문화 가족(조선일보, 2009, 11.19일자)이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미루어보아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사회는 계속적으로 다문화, 다민족이 교육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에 일조하는 음악교육을 위하여 특히 다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교사재교육이나 워크숍 등과 같은 경험적, 적극적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교사양성 기관에서는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수법을 교육과정으로 도입하는 방법 또한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음악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도 방법,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료들은 교사들에게 다문화 음악교육을 수업에 도입하는 데에 따른 자신감과 동기유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짐작되는 바 본 연구가 음악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경상북도 교육청(2009). 다문화가정자녀지원방안. 정책연구 2008-위탁-2009. 03.
- 김용기(2002).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에 관한 중학교 음악교사의 의식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 김향정(2009).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한국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향. 음악과 민족, 제38호.
- 민경훈(2004). 상호음악적 음악교육의 의미와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음악과 민족, 제28호.
- 박준현(2006). 초등학교를 위한 다문화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논문
- 방금주·김용희(2007a). 네 가지 학습모형을 사용한 다문화 음악수업 지도방안 개발. 음악과민족, 제33호.
- _____ (2007b). 아프리카 음악 교수·학습 방안 개발. 교육과정평가연구. 10(1). 서울: 교육과정평가원.
-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Anderson, W. M. & Campbell, P. S. (Eds.).(1996). *Multicultural Perspectives in Music Education*(2nd ed.). VA: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 Barara G. Bowman. (2008). Korean folk music in your curriculum, *Music Education Journal*, 95(1), 48-53.
- Banks, J. A.(2004).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ical development, dimensions, and practice. In Banks, J. A. & Banks, C. A. M.(eds.), *Handbook on Multicultural Education*(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Belz, Mary Jane (2006). Opening the doors to diverse traditions of music making: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at the university

- level. *Music Education Journal*, 92(5), 42-45.
- Blair, D. V. & Kondo, Shinko. (2008). Bridging musical understanding through multicultural musics. *Music Education Journal*, 94(5), 50-55.
- Bowman, B. G. (2008). Korean folk music in your curriculum, *Music Education Journal*, 95(1), 48-53.
- Campbell, P. S. (1996). Cultural consciousness in teaching general music, *Music Educators Journal*, 78(9), 30-36.
- Carolin, Michael (2006). An instrumental approach to culture study in general music. *Music Education Journal*, 92(5), 38-41.
- Colwell(Ed.),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NY:Schirmer Books. 735-748.
- Fung, C. Victor.(1995). Rationales for teaching world musics. *Music Educators Journal*, 82(2), 36-40.
- Hackett P. & Lindeman C. A.(1997). *The Musical Classroom: Backgrounds, Models, and Skills for Elementary Teaching*. 4th ed, NJ: Prentice-Hall, Inc.
- Judith M. Teicher(1997). Effect of mulicultural music experience on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attitud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3) 415-427.
- Lum, Chee-Hoo(2009). Teaching world music through feature films. *Music Education Journal*, 95(3), 71-75.
- Manning, M. Lee & Baruth, L. G. *Multicultural Educ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5th ed.), Allyn & Bacon Co..
- McDaniel, C. O., McDaniel, N. G., & McDaniel, A. K. (1988). Transferabil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from training to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2. 19-33.
- Moore, J. A.(1993). *An assessment of attitudes and practice of general*

music teachers regarding global awareness and the teaching of music from a multicultural perspective in American schoo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nt State University, Kent, OH.

- Nolte, E.(2004). *Interkulturelle Musikerhung musikdidaktische Theoreme und Proble*. 주대창 역, 음악교육, 서울:한국유·초등음악교육학회.
- Quesada, M. A.(1992). The effects of providing teaching materials and an inservice workshop concerning Puerto Rican music on music teachers' self-efficacy and willingness to teach Puerto Rican music (Doctoral dissertation, Kent state Univ.).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4, 455A.
- Parr, C.(2006). Eight simple rules for singing multicultural music. *Music Educators Jornal*, 93(1), 34-37
- Reagan, B. J.(1991). African-American congregational songs and singing traditions. In Anderson. *Teaching music with a multicultural approach*, VA:Music Educators Conference.
- Sarrazin, Natalie (2006). India's music: popular film songs in the classroom. *Music Education Journal*, 93(1), 26-32.
- Steven J. Morrison, & etc.(2008). Enculturation effects in music cognition: The role of age and music complexity.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6(2), 118-129
- Stephens, R. W. (1984). The effects of a course of study on Afro-American popular music in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Dissertation Agstracts International*, 45,3299A. (University Microfilms No. 85-01, 457)
- Teicher, Judith M. (1997). Effect of multicultural music experience on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attitudes, 45(3), 415-427.

ABSTRACT

A Modeling Development and Adaptation for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in Middle Levels Teaching-Learning Process

Kim, Hyang-Joung

Our society demands educators to be responsible for the nurturing of human mind's and recently it has become more difficult to teach students music as Korea is becoming a more diverse society. Korea has just chang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In other words, Korea has changed from a racially homogeneous nation to one who's diversity compares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Canada. Because of this appearance, the necessity of educating multicultural populations has grown dramatically. It is essential that the role of music education must meet national expec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teaching-learning model and present content and materials that can be adopted by teaching process for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in middle school levels. At first, researcher insisted that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should be taught in compliance with Korean culture. After reviewing several domestic and abroad studies including Music 7th textbooks, guidelines of the music curriculum 2007 revision, and teachers' perceptions, a model for teaching has been proposed. The results of theoretical works revealed that Educators feel that teaching and adapting in the classroom is difficult because of insufficiency of methods, various materials about multicultural music.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involves learning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aspects through music. These aspects include various human values, experiences, and musical notions. But 2007 revision music curriculum guidelines is apt to make music teachers misunderstand. This is because this revision consists of only two activities: singing and listening. It is vital to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that the curriculum involves teaching this cultural aspects. Thus, I suggest that music curriculum and textbooks indicate detailed ideas: picking up specific music of nation, the guiding culture and society of the nation, presentation of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 and offering various activities. Research presenting ideas in multicultural music teaching has proposed a model including 'cultural context approach', 'common contents approach', and 'comprehensive teaching approach' for middle school levels. I have proposed an example to be used for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showing the detailed teaching method of the Japanese traditional song 'Kokiriko' and Phillippine traditional song 'BahayKubo'. According to the Banks, the population of immigrants in America will consist of over 46.7% foreigners by 2020, and according to Chosun Newspaper, one of every seven families in South Korea will be multicultural by 2020. These statistics allow us to anticipate that the world will be immersed in multicultural issues more and more, and it is essential that education should prepare for these chan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practical teaching methods and high quality materials music be developed for the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field to help a multicultural society succeed.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music education authorities provide opportunities to re-educate music teachers. Just as Korean culture is evolving, it is our duty the allow teaching to evolve in the same manner to meet our national expectations.

Key Words :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Cultural Context Approach, Common Contents Approach, Comprehensive Teaching Approach

투고일: 2010년 3월 30일, 심사(수정), 5월 27일(6월 8일), 게재확정일(6월 18일)